

# 朱彝尊 詞 研究\*

이 석 형\*\*

<目 次>

I. 서론	IV. 詠物詞
II. 艷情詞	V. 結 論
III. 懷古詞	

## I. 서론

朱彝尊은 詞學 이론에 있어서 浙西詞派의 이론적 강령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의 창작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 陳維崧과 함께 清代 초기 詞壇을 대표한다. 朱彝尊이 제창한 詞學 이론과 창작 실천의 성과는 明代 이후 散曲과의 구별이 모호해진 詞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켜 清初 詞壇을 일신하였고, 이후 그의 詞學 주장에 동조하는 浙西詞派가 형성이 되어 청 중기까지 詞壇의 흐름을 주도해 나갔다. 따라서 朱彝尊 詞學에 대한 이해는 清代 詞學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浙西詞派 이론 강령으로서의 朱彝尊 詞論에 관하여 검토한 바 있다.<sup>1)</sup> 그러나 이론적 탐구만으로는 朱彝尊 詞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한계가 있으며 그의 사 창작 실천상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중어학과 교수

1) 拙稿, <朱彝尊詞論研究>, 《中國文學》 제39집, pp.130-154.

할 필요를 절감하고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淸初 詞壇에 있어서 朱彝尊의 詞 창작상의 성과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차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그의 詞學 이론이 실제 창작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가 論詞의 최고 표준으로 내세운 醇雅의 의미 범주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작품의 분석에 앞서 朱彝尊의 생평과 그가 남긴 詞集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朱彝尊(1629~1709)은 字가 錫鬯이고 號는 竹垞, 小長蘆釣魚師, 金風亭長이다. 浙江 秀水(지금 嘉興市)사람이다. 증조 朱國祚는 明 熹宗 때 관직이 大學士에 이르렀고 조부 朱大競은 雲南 楚雄府 知府를 지냈다. 生父 朱茂曙는 天啓 初年の 諸生이었으며, 嗣父 朱茂暉는 中書舍人에 이르렀고 復社의 성원이었다. 그러나 朱彝尊이 어렸을 때 가세는 이미 기울기 시작하였다. 甲申년(1644) 明이 멸망하였을 때 朱彝尊은 16세였으며 다음해 歸安縣 儒學教諭 馮鎮鼎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갔다.

順治 13년(1656) 高要縣 知縣 楊雍建이 아들의 사숙으로 초빙하자 朱彝尊은 이에 응하여 廣東으로 갔고, 마침 廣東布政使로 와 있던 曹溶과 왕래하면서 그를 도와 《嶺南詩選》을 편집하였다. 2년 뒤 집으로 돌아와서 魏耕 등의 抗淸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거사 전에 발각되어 康熙 원년(1662) 永嘉(溫州)로 피신하였다. 康熙 3년(1664)에는 山西按察副使 曹溶을 따라 雲中(大同)에 가서 4년간 雲中 雁門關 居庸關 太原 宣府 등을 유람하였다. 이후 北京 山東 揚州 福州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때는 바로 王士禛이 말한 바 ‘사람을 따라 멀리 돌아다니면서 남쪽으로는 五嶺을 넘고 북쪽으로는 雲朔을 나가고 동쪽으로는 滄海를 떠돌아다닌’<sup>2)</sup> 시기에 해당한다.

康熙 18년(1679) 朱彝尊은 ‘名布衣로 부름을 받아 博學鴻詞科에 응시하여 第1等 第17名으로 합격하였고 翰林院檢討를 제수받아 史館에서 《明史》를 纂修하였다. 康熙 20년(1681) 日講官起居注에 충원되었고, 江南鄉

2) <曝書亭集序>: 依人遠游, 南逾五嶺, 北出雲朔, 東泛滄海.

試主考를 맡아 江寧으로 나갔다가 이듬해 北京으로 돌아 왔다. 康熙 22년(1683)에는 南書房에 들어갔으며 康熙帝는 그가 紫金城에서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고 또한 景山の 동쪽에 거처를 하사하였다. 이 때는 朱彝尊이 남다른 영예를 누리고 큰 명성을 날리던 득의의 시기였다. 康熙 23년(1684) 규례를 어기고 사사로이 필경사를 대동하고 궁궐에 들어가 四方에서 올린 圖書를 베꼈다는 이유로 탄핵되어 一級이 강등되었고, 이어 궁궐 밖으로 거처를 옮겼다. 康熙 29년(1690) 원래 관직에 복직되었고 2년 뒤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오랜 외유를 마감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와 康熙 48년(1709) 세상을 떠날 때까지 經學 연구에 몰두하여 저술활동을 하며 노년을 마감하였다. 저서로는 《曝書亭集》81권이 있다.

朱彝尊의 詞學활동은 順治 13년(1656) 廣東布政使 幕舍에서 曹溶과 왕래하면서 시작되어<sup>3)</sup> 康熙 31년(1692)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난다.<sup>4)</sup> 이 40년 가까운 기간에 그가 지은 詞는 《眉匠詞》《靜志居琴趣》《江湖載酒集》《蕃錦集》《茶煙閣體物集》 등에 실려 전한다. 《眉匠詞》는 초기 습작 사를 모아놓은 것으로 《曝書亭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만년에 朱彝尊이 자신의 문집을 정리하면서 빼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모두 56수가 실려 있는데 長調보다는 小令이 많다. 작품의 수준은 높지 않지만 朱彝尊의 초기 사 학습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sup>5)</sup> 《靜志居琴趣》는 처제 馮壽常과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을 노래한 사 작품 83수를 모아놓은 것으로 馮壽常이 세상을 떠난 해인

3) 朱彝尊, <靜揚堂詞序>: 彝尊憶壯日從先生南游嶺表, 西北至雲中, 酒闌燈地, 往往以小令慢詞更迭倡和, 有井水處輒爲銀箏檀板所歌

4) 朱彝尊, <水村琴趣序>: 予既歸田, 考經義存亡, 著爲一書, 不復倚聲按譜.

5) <齊天樂>(欄干三面垂楊裏)의 小序에는 ‘丁酉暮春에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順治 14년(1657) 廣東에서 지은 작품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이로써 朱彝尊의 사 학습이 曹溶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眉匠詞》의 시풍은 다양하여 《花間集》은 물론이고 北宋의 晏幾道 周邦彥 秦觀 蘇軾 및 南宋의 辛棄疾 姜夔와도 가까운 풍격의 사들이 보인다. 이것은 처음 朱彝尊의 사 학습 대상이 아주 광범하였으며 어느 한 시대 한 작가의 구속을 받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康熙 6년(1667)에 완성되었다.<sup>6)</sup> 《江湖載酒集》은 젊은 날 실의에 차서 남북으로 떠돌아다니며 客居 생활을 하면서 지은 사 210수를 수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艷情, 懷古, 身世之感, 酬贈, 卽興, 詠物 등 다양하다. 康熙 11년(1672)에 完成되었고 康熙 18년(1679) 龔翔麟이 출판한 《浙西六家詞》에 포함되었다. 지금 전하는 《曝書亭集》 본에는 康熙 11년 이후에 지어진 사들도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sup>7)</sup> 만년에 재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蕃錦集》은 唐代 詩人들의 詩句를 모아 지은 集句詞 109수를 모아놓은 것으로 글자 수가 적은 詞調부터 차례로 작품을 배열하고 있다. 康熙 17년(1678)에 완성되었다. 《茶煙閣體物集》은 詠物詞 114수를 모아놓은 사 집이다. 康熙 17년 博學鴻詞科에 응시하러 京師로 갈 때 지니고 갔던 《樂府補題》를 모방하여 지은 詠物詞가 대부분으로 朱彝尊이 득의한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이지만 그 이전 젊었을 때에 지어진 작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출판된 《朱彝尊詞集》<sup>8)</sup>에는 이 외에도 光緒 22년(1896) 常熟翁氏가 간행한 《曝書亭詞拾遺》에 실린 79수의 사와<sup>9)</sup> 《曝書亭詞補拾》이란 이름으로 새로 수집한 11수의 사를 수록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朱彝尊 사를 총망라하였다. 아울러 각 작품마다 교감과 표점을 가하고 후대 詞人들의 각 작품에 대한 평까지 곁들여 놓아 참고하기 편리하다.

朱彝尊의 사 작품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660수나 된다. 그것을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艷情, 懷古, 客愁, 身世之感, 酬贈, 卽興, 詠物, 題畫, 送別 등 매우 다양하다. 이 방대한 분량을 짧은 지면에서 세세하게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朱彝尊의 사 창작 성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淸初 詞壇에 있어서의 朱彝尊의 사 창작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내용, 즉 艷情

6) 葉嘉瑩, 《淸詞叢論》 p.103.

7) 蘇淑芬, 《朱彝尊之詞與詞學研究》 pp.168-170.

8) 屈興國 袁李來 點校, 《朱彝尊詞集》,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4.

9) 원래는 모두 93수인데 그 중 16수는 散曲으로 실제 사 작품은 77수이다.

懷古 詠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艷情詞

艷情은 사의 가장 친숙한 제재이다. 《花間集》에 실린 사가 대부분 艷情을 다룬 이래로 모든 시인에게서 艷情詞가 보인다. 朱彝尊 역시 사를 처음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艷情을 주요 제재로 다루었다. 《江湖載酒集》 가운데 보이는 艷情詞는 많은 부분 기녀들과 관련되어 있어 제재나 주제에 있어서는 역대사에서 늘상 보이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여행 도중에 우연히 만난 기녀와의 장난기 어린 희롱<sup>10)</sup>이나 기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묘사한 작품<sup>11)</sup>에서 어떤 심원한 내재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朱彝尊은 아름다우면서도 경박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절제 있는 표현으로 슬프고 아름다운 정서를 구성지게 그려내는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다.

朱彝尊의 艷情詞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슬픈 사랑을 서사적으로 그려낸 <高陽臺>를 들 수 있는데 그 序는 다음과 같다. “吳江 葉元禮<sup>12)</sup>가 젊은 날에 流虹橋<sup>13)</sup>를 지났는데, 누각 위에서 그를 보고 사모하여 마침내 상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여인이 있었다. 숨이 끊어지려 할 때 때마침 葉元禮가 다시 그 집 문을 지나갔는데, 그녀의 모친은 여인이 임종할 때 한 말을 葉元禮에게 들려주었다. 葉元禮가 들어가 곡을 하자 여인의 눈이 비로소 감기었다. 친구는 이를 위하여 전을 지었고 나는 사로 써내었다.”<sup>14)</sup> 이 작품은 사랑에 빠진 여인이 사랑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10) <殢人嬌·贈女郎細細>나 <晝夜樂·贈伎蠟兒>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

11) <太常引·寄呂二梅> <南樓令·倩人寄靜怡札> <尉遲杯·七夕懷靜怡> 등과 같이 呂二梅나 靜怡와 관련된 사가 이런 유에 속한다.

12) 葉元禮는 이름이 舒崇이고 吳江人이다. 康熙 15년(1671)에 진사에 합격하여 관직은 中書舍人에 이르렀다. 朱彝尊과는 절친한 관계였고 《江湖載酒集》에 서를 써 주기도 하였다.

13) 《蘇州府志》에 의하면 流虹橋는 吳江縣 성밖 同里鎮에 있었다.

된다는 슬프고 아름다운 고사를 써낸 것이다.

橋影流虹, 湖光映雪, 翠簾不卷春深, 一寸橫波, 斷腸人在樓陰,  
游絲不繫羊車住, 倩何人 傳語青禽, 最難禁 倚徧雕闌 夢徧羅衾  
重來已是朝雲散, 悵明珠佩冷, 紫玉煙沈, 前度桃花, 依然開滿江濤,  
鐘情怕到相思路, 盼長隄 草盡紅心, 動愁吟 碧落黃泉, 兩處誰尋<sup>15)</sup>

다리 그림자엔 무지개 흐르고  
호수의 풍광 하얀 물보라에 비치는데  
비취 발 말지 않은 채 봄은 깊어가네.  
온 마음으로 눈길 보내며  
애 끊는 사람 누각 어두운 데에 있네.  
游絲로 羊車를 매어두지 못하니<sup>16)</sup>  
누구에게 부탁하여  
사랑한다는 말을 전할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조각된 난간에 기대는 것과  
비단 이불에서 꿈꾸는 것이었네.

다시 왔을 때는 이미 아침 구름처럼 흩어져,<sup>17)</sup>  
明珠 패옥이 차갑게 식고<sup>18)</sup>  
紫玉이 연기로 잦아든 것을 슬퍼하였네.<sup>19)</sup>

- 14) 吳江葉元禮少日過流虹橋, 有女子在樓上見而慕之, 竟至病死, 氣方絕, 適元禮復過其門, 女之母以女臨終之言告葉, 葉入哭, 女目始瞑, 友人爲作傳, 余記以詞.
- 15) 본고에 인용된 詞에서 韻은 ‘으로, 句는 ‘으로, 逗는 빈칸으로 처리하였다.
- 16) 游絲는 날아 다니는 거미줄을, 羊車는 장식이 호화로운 수레를 말한다.
- 17) 아침 구름은 宋玉 <高唐賦>의 楚 懷王이 만난 巫山의 神女가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지나는 비가 된다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아침구름처럼 흩어졌다는 말은 여인의 죽음을 비유한다.
- 18) 이 구는 劉向의 《列仙傳》에 나오는 江妃二女가 江漢의 물가에서 鄭交甫를 보고는 그를 좋아하여 패옥을 풀어 주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 19) 紫玉은 춘추시대 吳王 夫差의 딸로 小玉이라고도 한다. 晉 干寶의 《搜神記》에 의하면 紫玉이 韓重을 좋아하여 그에게 시집을 가고자 하였으나 부친의 반대로 우물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뒤에 자옥의 혼이 돌아와 사람의

지난날의 복사꽃  
 여전히 강가에 가득 피어있네.<sup>20)</sup>  
 사랑에 빠져 상사의 길에 이르렀을 터  
 긴 강 언덕의 풀  
 모두 紅心草이기를 바라네.<sup>21)</sup>  
 슬픔에 겨워 읊조리지만  
 푸른 하늘과 황천  
 이 두 곳을 누가 찾아가리?<sup>22)</sup>

이 사의 상편은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은 것을 묘사하고 하편은 葉元禮가 여인을 애도한 것을 묘사하여 순서가 분명하고 구성이 치밀하다. 葉元禮는 朱彝尊과 절친한 친구였으니 이 사에서 서술한 내용의 사실성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다. 봉건 예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런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 확실히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다. 거기에는 작가는 신화 속의 아름다운 고사들과 唐詩 가운데의 意境을 적절히 운용하여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해내었으니 ‘애처로움을 묘사한 것이 아주 뛰어나다’<sup>23)</sup>고 평할 만하다.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왕의 부인이 그를 끌어안자 자옥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 20) 이 구는 崔護의 <題城南莊>시 “지난 해 오늘 이 문 가운데에는 / 그 사람 얼굴과 복사꽃이 서로 붉게 비치었네. / 그 사람 얼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 복사꽃은 여전히 봄바람에 웃고 있네(去年今日此門中, 人面桃花相映紅, 人面不知何處去, 桃花依舊笑春風)”를 暗用하고 있다.
- 21) 《異聞錄》에 의하면 王炎이 꿈에 吳王을 모시고 있었는데 西施를 장례한다는 소리를 듣고 교시에 응하여 서시를 위한 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땅 가득한 紅心草 / 삼층의 碧玉 계단. / 봄바람은 처소가 없는데 / 쓸쓸한 원망에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네.(滿地紅心草, 三層碧玉階, 春風無處所, 淒恨不勝懷)
- 22) 마지막 2구는 白居易 <長恨歌>의 “위로 하늘 끝까지 가고 황천에 내려가도 / 두 곳 모두 아득하니 만날 수 없네(上窮碧落下黃泉, 兩處茫茫皆不見.)”를 인용하였다.
- 23) 陳廷焯, 《詞則·別調集卷3》: 淒警絕世 (《朱彝尊詞集》 p.24 에서 재인용)

아래의 <桂殿秋>는 單調의 小令으로 平淡한 가운데 典故나 僻語도 없어 특별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역대로 詞論家들의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思往事, 渡江干, 青蛾低映越山看. 共眠一舸聽秋雨, 小簾輕衾各自寒

지난 일 생각한다.

강을 건널 때

푸른 아미에 낮게 비친 越山을 바라보았지.

함께 한 배에서 잠지는데 가을 비 소리 들으며

작은 대자리 가벼운 이불에서 제각기 추워했지.

위 <桂殿秋>에서 묘사한 것은 지난 날 연정에 대한 추억과 감수이다. 이 작품에는 本事가 있다고 여겨져 왔다. 順治 2년(1645) 朱彝尊은 17살에 敎諭 馮鎮鼎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갔는데 당시 그의 처제(이름은 壽常, 자는 靜志)는 朱彝尊의 아내보다 4살이 적은 11살이었다. 이 해 청나라 군대가 嘉興에 쳐들어와 朱彝尊은 처가를 따라 練浦塘 동쪽 馮村으로 피난하였고 順治 6년 도적이 도처에서 일어나자 梅會里로 이사하였다. 그 마을에는 王店이란 저자가 있었는데 연포당 서북쪽에 있었으며 그 때 처제는 이미 15살이었다. 이 사에서 묘사한 강을 건넌 것은 朱彝尊이 처가를 따라 馮村에서 練浦塘을 거쳐 王店에 이르는 길에서의 일로 추측된다.<sup>24)</sup> ‘푸른 아미’는 여자의 푸르게 그린 눈썹을 말한다. 嘉興 지역은 평평한 들판으로 둘러싸여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녀의 푸른 아미의 높이에 낮게 비친다고 말한 것이다. 작가가 본 것은 푸른 아미 같은 산이기도 하고 산 같이 푸른 아미를 가진 소녀이기도 하다. 다음의 ‘함께 한 배에서 잠잔다’는 것은 피난할 때 한 배에 있어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움을 말한다. ‘가을 비 소리를 듣는다’고 하였으니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24) 艾治平, 《清詞論說》 上海 學林出版社, 1999.7 p.281.

두 사람이 느낀 추위는 가을 비 소리에서 느끼는 寒氣이기도 하지만 쓸쓸하게 서로를 그리워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지척에 있지만 하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연인의 모습을 완곡하게 그려내었다. 한 글자도 그리움이나 괴로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슬프고 괴로운 감정, 남모르는 원망의 심경이 모두 言外에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 대하여 譚獻은 “(朱彝尊은) 單調小令에 있어 근세의 명가로 다시 五代 北宋의 단서를 펼쳐 일으켰다”<sup>25)</sup>고 하였고, 況周頤는 “清 詞人 가운데 누가 최고라고 해야 할까 묻는다면 거듭 헤아려보아도 金風亭長이라고 대답하겠다. 뛰어난 작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물으면 <搗練子>(즉 <桂殿秋>)를 들겠다”<sup>26)</sup>고 호평하였다.

처제 馮壽常과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을 노래한 사를 모아놓은 것으로 알려진《靜志居琴趣》는 위 <桂殿秋>와 같이 표현 수법은 質朴하고平易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해내기 어려운 작가의 그윽한 감정이 言外에 잘 드러나 있다. 일반 艷情詞에서 보이는 側艷의 작품과는 달리 작가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된 참된 정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靑樓의 음주석상에서 질탕하게 주고받은 여느 艷情詞와도 다르다. 眞摯 細膩 纏綿은 《靜志居琴趣》의 특징이다. <鵲橋仙·十一月八日>은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났을 때의 정을 묘사한 것이다.

一箱書卷, 一盤茶磨, 移住早梅花下. 全家剛上五湖舟, 恰添了個人如畫  
月弦初直, 霜花乍緊, 蘭槳中流徐打. 寒威不到小蓬窗, 漸坐近 越羅裙衩

책 한 상자  
차 질구 하나  
이른 매화 아래로 이주하는데

25) 《篋中詞》: 單調小令, 近世名家, 復振五代北宋之緒. (艾治平, 《清詞論說》 p. 280에서 재인용)

26) 《蕙風詞話》 권5: 或問國朝詞人, 當以誰氏爲冠? 再三審度, 舉金風亭長對, 問佳構奚若? 舉搗練子云云

온 가족이 五湖의 배에 올랐을 때  
바로 그림 같은 사람 더하였네.

반달이 막 떠오르자  
순식간에 성애가 끼고  
목란 샷대 천천히 강물을 때리는데,  
寒氣가 조그만 쭉 창에 이르지 않은 것은  
점차 越 비단 치마 가까이 다가와서였네.

<鵲橋仙>은 七夕의 牽牛 織女 고사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詞調인데, 이 작품에서는 11월 8일이라는 날짜를 副題로 달았다.<sup>27)</sup> 특정한 날짜를 부제로 하였다는 것은 작가가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이 있음을 의미한다. <年譜>에 의하면 順治 15년 6월 朱彝尊은 廣東으로부터 돌아와 11월 8일 梅里 荷花池로 이사하였다. 아마도 그 당시 시집갔다가 마침 친정과 와 있던 처제가 朱彝尊 가족이 이사할 때 배에 동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28)</sup> ‘책 한 상자, 차 절구 하나’ 뿐인 청빈한 작가의 모습은 ‘그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다시 만난 반가움 속에서 言外の 운치가 더해진다. 그리하여 작가가 타고 있는 배는 范蠡가 西施와 함께 속세를 떠나 유람했던 ‘五湖의 배’를 연상시킨다. 換頭的 ‘반달은 음력 8일 밤을 가리키고 ‘성애가 낀다’는 것은 음력 11월의 상황이다. 한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가까이 앉아있기 때문이다. 詩詞 가운데 복식에 대한 묘사는 왕왕 인물의 품격이나 감정을 암시하는데, ‘越 비단’은 인품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치마’는 다정함을 암시한다고 볼 때 이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배 안에 함께 있는 온 가족의 시선 때문에 행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情景와 분위기가 모두 눈

27) 《靜志居琴趣》에 副題가 있는 시는 7수인데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鵲橋仙·十一月八日><婆羅門令·九日><聲聲慢·七夕><如夢令·七夕><采桑子·五月六日><無悶·雨夜><怨王孫·七夕>로서, 七夕을 포함하여 날짜로 부제를 단 것이 6수이다.

28) 葉嘉瑩, 《清詞叢論》 p.76.

앞에 휩쓸리게 다가오는데 허구적인 묘사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심리 상태의 미묘한 변동 역시 지극히 진실감이 있다.

朱彝尊은 정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의 艷情詞의 성취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그의 성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靜志居琴趣》의 작품이 감동적인 것도 무엇보다도 작가 개인의 공개할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깊고 진지한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陳廷焯은 “艷詞는 竹垞에 이르러 綺羅香澤의 모습을 다 끌어내고 순수하게 眞氣가 맴돌게 하였으니 情이 지극한 사람은 글 역시 지극하다”<sup>29)</sup>고 평한 바 있거니와, 朱彝尊은 悲戀의 체험에서 비롯된 자신의 眞情을 白描의 수법으로 詞에 써냄으로써 五代 北宋詞를 추종하였던 明末 清初 詞壇의 艷情 작품에서 보이는 浮艷한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었던 것이다.

### Ⅲ. 懷古詞

朱彝尊은 16세에 조국 明의 멸망을 경험하고는 더 이상 과거준비를 위한 공부에 미련을 두지 않고 經史 및 詩文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아울러 문인 학자 등 당시의 명사들과 문학적으로 교류하였고, 抗清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말각되어 멀리 피신한 적도 있었다. 이는 明朝에서 高官을 지낸 바 있던 朱氏 집안의 내력과 그가 받았던 충효를 중심으로 한 儒學 교육, 그리고 反清 의식이 높았던 浙江 지역 민심에 영향받은 바 크다고 하겠다. 전통 사회에서 科擧를 포기한 빈한한 문인이 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은 後學을 가르치거나 관료의 幕下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었다. 고향에서의 學童 지도로는 생계가 여의치 않았던 朱彝尊은 順治 13년(1656) 楊雍建이 아들의 사숙으로 자신을 초빙하자 멀리 廣東으로 길을 떠난다. 그곳

29) 《詞則·閑情集》권4: 艷詞至竹垞 掃盡綺羅香澤之態 純以眞氣盤旋 情至者文亦至.

에서 朱彝尊은 同鄉人 曹溶과 왕래하였고, 康熙 3년(1664)에는 山西按察副使에 임명된 曹溶을 따라가 雲中에서 지내며 雲中 雁門關 居庸關 太原宣府 등을 유람하였다. 이후 그는 康熙 17년(1678) 博學鴻詞科에 합격하기까지 전국 각지를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며 곤궁하게 실의에 찬 삶을 산다. 그러나 사의 창작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역사의 滄桑과 자신의 신세에 대한 감수가 반영된 걸작들이 많이 지어졌다. <解珮令·自題詞集>은 이 시기의 사집인 《江湖載酒集》<sup>30)</sup>의 自序에 해당하는데 그 上片은 다음과 같다.

十年磨劍, 五陵結客, 把平生 涕淚都飄盡. 老去填詞, 一半是 空中傳恨. 幾曾圍 燕釵蟬鬢

십 년간 검을 갈며  
五陵에서 나그네들과 사귀면서<sup>31)</sup>  
평생의 눈물을 모두 날려보냈네.  
늙어가며 지은 詞는  
반이 공중에恨을 전한 것이었으니  
어찌 미녀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었던가?<sup>32)</sup>

‘늙어가며 지은 詞는 반이 공중에恨을 전한 것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이 시기 作詞의 宗旨을 개괄한 것이다. 《江湖載酒集》 가운데 關河를 떠돌아다니고 남북을 왕래하면서 옛날을 슬퍼하며 마음속의 생각을 써낸 懷古詞에는 구 왕조에 대한 애도와 연민의 정을 나타낸 작품이 많다. 그러

30) 《江湖載酒集》은 杜牧 <遣悲懷>시의 ‘실의에 빠진 채 술을 싣고 江湖를 돌아다니다(落拓江湖載酒行)’ 구의 뜻을 취하여 명명한 것이다.

31) 五陵은 漢의 다섯 황제의 무덤으로 바로 高帝 長陵, 惠帝 安陵, 景帝 陽陵, 武帝 茂陵, 昭帝 平陵을 가리킨다. 모두 渭水 북쪽에 있으며 지금 咸陽市 부근에 해당한다. 옛날 이곳에는 豪俠이 많았다고 알려졌다.

32) 사 원문의 燕釵 蟬鬢은 제비모양의 옥비녀와 미녀의 머리 모양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리킨다.

나 淸初에는 文字獄이 심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서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특정한 분위기를 그려내어 우회적으로 서술하였다. 작품에 묘사된 분위기 가운데 감정과 뜻을 주입하고 이로부터 감정과 意境을 결합하여 둘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朱彝尊이 말한 ‘공중에 恨을 전하는’ 표현수법이였다.

明 왕조에 대한 연민과 追悼의 정을 담아낸 <賣花聲·雨花臺>를 보자.

衰柳白門灣, 潮打城還 小長干接大長干, 歌板酒旗零落盡 剩有漁竿  
秋草六朝寒, 花雨空壇 更無人處一憑闌 燕子斜陽來又去 如此江山

시든 버들, 白門의 물굽이<sup>33)</sup>  
조수가 성을 때리고 돌아가네.  
小長干은 大長干에 이어지는데<sup>34)</sup>  
歌板과 주막 깃발 다 망가지고<sup>35)</sup>  
남짓대만 남아 있네.

가을 풀에 六朝는 썰렁하고  
꽃비가 내렸다는 단은 텅 비었는데  
다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시 난간에 기대네.  
제비가 석양에 왔다 또 가거니와  
강산도 이와 같구나.

金陵은 六朝의 도성으로 6왕조가 300여년간 부침을 거듭한 곳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金陵의 雨花臺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면서 내면에 일어나는 왕조의 흥망에 대한 감흥을 써 낸 것이다. 上片은 영락한 金陵의 모습이 다. 강가의 버들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조수는 텅 빈 성을 치고 또 쓸쓸하게 소리 없이 물러간다. 지난 날 화려했던 도성의 거리는 온통 황량하게

33) 白門은 六朝의 도성인 金陵, 즉 지금의 南京을 말한다.

34) 小長干 大長干은 모두 金陵의 지명이다.

35) 歌板은 拍板으로 노래의 박자를 맞추는 타악기이다.

변하여 歌板은 침묵하고 주막의 깃발은 망가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단지 隱者의 낚싯대뿐이다. 下片은 雨花臺의 모습과 그곳에서의 전망을 묘사하였다. 梁武帝 때 雲光이라고 하는 法師가 이곳 雨花臺에서 經을 講하자 하늘이 감동하여 꽃을 비처럼 뿌려주었다는 아름다운 고사가 전하지만, 지금은 다만 말라버린 가을풀이 찬바람에 떨고 있고 雨花라는 虛名의 壇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제비가 석양에 왔다 또 간다’는 표현은 劉禹錫의 <烏衣巷>의 詩境을 化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가는 마음속의 여러 감정과 슬픔을 ‘강산도 이와 같다’는 결어에 쏟아내었다. 붓놀림이 거친 듯 하면서도 자구에는 다듬은 흔적이 보이지 않아 彫琢이 自然으로 귀결된 경지에 도달하였다. 작품 전체는 경치를 묘사하면서 정을 써내고 있다. 또한 글자마다 흥망의 감개가 스미어 있다. 雨花臺가 있는 金陵은 六朝의 古都일 뿐만 아니라 明 태조와 南明 福王의 도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朱彝尊은 <風蝶令>에서도 古都 金陵이 淸 군대의 남침으로 파괴되고 곳곳에 상처를 남긴 것을 목격하고 이를 슬퍼하면서 ‘높은 雨花臺는 썰렁하고, 치욕스런 臙脂井은 봉해졌네(花雨高臺冷, 臙脂辱井緘)’라고 노래한 바 있다. 譚獻이 이 사를 가리켜 ‘소리가 대를 찢을만하다’<sup>36)</sup>고 한 것은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興亡의 感慨를 포착한 식견 있는 평이라 하겠다.

다음의 <百字令·度居庸關>은 명 왕조의 멸망에 대한 작가의 감개를 더욱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崇墉積翠, 望關門一線, 似懸檐溜. 瘦馬登登愁徑滑, 何況新霜時候.  
畫鼓無聲, 朱旗卷盡, 惟剩蕭蕭柳. 薄寒漸甚, 征袍明日添又.  
誰放十萬黃巾, 丸泥不閉, 直入車箱口. 十二園陵風雨暗, 響徧哀鴻離獸.  
舊事驚心, 長塗望眼, 寂寞閑亭堠. 當年鎖鑰, 董龍真是雞狗.

높은 성벽엔 비취빛 쌓였고  
바라보니, 관문 한 줄은

36) <篋中詞>: 聲可裂竹. (《朱彝尊詞集》 p.34에서 재인용)

처마 낙수받이를 매달아 놓은 듯하네.  
 여윈 말 오르며 길 미끄럽다고 걱정하는데  
 하물며 서리 갓 내린 때임에랴  
 채색 배푼 붉은 소리가 없고  
 붉은 깃발 다 말렸는데  
 다만 쓸쓸한 버들만이 남아 있다.  
 옅은 추위 점점 심해지니  
 내일은 또 征袍를 덧입어야겠다.<sup>37)</sup>

누가 黃巾 십만을 풀어<sup>38)</sup>  
 진흙 구슬로 막지 못하고<sup>39)</sup>  
 곧바로 車箱峽의 입구에 들게 하였는가?<sup>40)</sup>  
 十二園陵엔 비비람 어둑하고<sup>41)</sup>  
 구슬픈 기러기와 무리 떠난 짐승소리 뿐이다.  
 지난 일 마음을 놀라게 하는데  
 먼길을 바라보는 눈에는  
 적막하니 정자와 이정표만 한가롭다.  
 당시 관문을 지키던  
 董卓은 잠으로 닭이요 개였다.<sup>42)</sup>

37) 征袍는 여행자가 입는 긴 옷을 말한다.

38) 黃巾은 黃巾軍, 즉 東漢末의 農民起義軍이다. 여기서 李自成的 군대를 가리킨다. 《明史記事本末》권78에 의하면 明末에 李自成的 군대는 寧夏를 공격하고 三邊을 노략질하고 동쪽으로 居庸을 치고 京邑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39) 《後漢書·隗囂傳》에 王元이 隗囂를 설득하여 '하나의 진흙 구슬로 대왕을 위하여 동쪽으로 가서 함곡관을 막으십시오(請以一泥丸爲大王東封函谷關)'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이 진고를 사용한 것이다.

40) 《明史記事本末》권78에 의하면 총독 陳奇瑜가 李自成 군대를 車箱峽에서 큰 공경에 빠뜨렸는데 李自성이 자신을 포박하고 거짓 항복해오자 陳奇瑜는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41) 十二園陵은 明代 成祖로부터 熹宗까지의 12황제의 무덤이다. 明 멸망 이후 思宗(崇禎)이 이곳에 장사되고서 十三陵이라고 불려졌다.

42) 사 원문의 董龍은 董氏이다. 董姓은 參龍氏 董父의 후예이므로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여기서 董卓을 가리킨다.

居庸關은 唐代에는 軍都關 薊門關으로도 불렸다. 지금 北京 昌平 서북에 있었는데 長城의 중요한 關門이고 고대 북경 서북쪽의 장벽으로 역대로 병가들이 다투던 지역이다. 이 작품은 居庸關을 지나며 보고 느낀 바를 묘사하면서 明 멸망에 대한 작가의 비분을 써낸 것이다. 上片은 험준한 산중에 위치한 웅장했던 居庸關이 쓸쓸하게 영락하였음을 묘사하였다. 換頭 3구는 明將이 무능하여 거듭된 잘못으로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을 만들었다는 질책이다. 이어 十二園陵에 암울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새와 짐승이 쓸쓸히 울어대는 그림을 묘사하여 명이 멸망한 참극을 고도로 농축시켜 냈는데 여기에 작가의 무한한 슬픔이 함축되어 있다. 董卓은 東漢末年에 黃巾賊에게 패한 장수로, 여기에서는 李自成을 토벌하는 將帥를 가리킨다. 마지막 두 구의 의미는 비록 관문 요새가 험준하고 견고하여 지킬 만하였지만 지키는 자가 모두 董卓과 같은 닭이나 개와 같은 무리여서 明 왕실은 결국 멸망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上片은 景物을 묘사하여 슬픈 마음을 드러내었고 下片은 議論과 抒情을 위주로 하였다. 全篇이 앞뒤가 호응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어 느슨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친다. 明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감정을 써내었으면서도 신 왕조에 대한 언급은 한 글자도 없다. 이 작품에 대하여 譚獻은 ‘뜻이 깊다<sup>43)</sup>고 평하였다. 그러나 그 ‘뜻’은 흐릿하고 느슨하게 표현되었다. 이것이 바로 朱彝尊 사의 특징이다. 뜻이 깊이가 있고 농도가 짙은데 흐릿하고 느슨하게 써내면 淸空을 얻을 수 있지만 뜻이 산만하고 농도가 낮으면서 흐릿하게 칠해낸다면 空楞로 떨어지게 된다.<sup>44)</sup> 후기 浙西詞派 사인들이 朱彝尊 사의 이러한 특징을 계승하지 못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비교적 멀리 현실정치를 벗어나서 옛날을 애도하는 사 가운데는 작가의 의중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漢 張良의 묘를 찾아서 그를 애도하여 지은 <水龍吟·謁張子房祠>을 보자.

43) 《篋中詞》권2: 意深. (《朱彝尊詞集》 p.47에서 재인용)

44) 嚴迪昌, 《淸詞史》 p.243.

當年博浪金椎, 惜乎不中秦皇帝! 咸陽大索, 下邳亡命, 全身非易.  
縱漢當興, 使韓成在, 肯臣劉季? 算論功三杰, 封留萬戶, 都未是 平生意  
遺廟彭城舊里. 有蒼苔 斷碑橫地. 千盤驛路, 滿山楓葉, 一灣河水.  
滄海人歸, 圯橋石杳, 古牆空閉. 悵蕭蕭白髮, 經過攬涕, 向陽斜裏

당시 博浪의 쇠 몽둥이 45)  
秦 황제를 맞추지 못한 것 애석하구나!  
咸陽에서 크게 수색령이 떨어지자  
邳로 내려가 망명하였으니  
몸 보전하기가 쉽지 않았으리.  
비록 漢이 흥성하고 있었다해도  
韓成이 살아 있었다면  
劉씨 막내에게 신복했겠는가?  
생각해보건대, 論功이 三杰에 해당하고  
萬戶에 봉해졌지만  
모두 평생의 뜻은 아니었네.

彭城 옛 마을에 남아 있는 사당에는  
푸른 이끼의 부러진 비석이 땅에 누워있네.  
천 굽이 빙빙 도는 역 길  
산 가득한 단풍나무 잎  
굽어 흐르는 황하의 강물.  
넓은 바다로 사람 돌아가는데  
圯橋의 돌은 아득하고 46)  
옛 담은 부질없이 단혀있네.  
슬프다, 회곳회곳한 백발로  
지나가며 눈물 뿌리고  
해 가우는 곳으로 향하고 있음이.

45) 博浪은 博浪沙를 말하며 河南省 陽武縣 동남쪽에 있다. 張良이 力수를 시켜 秦始皇을 저격하게 한 곳이다.

46) 圯橋는 다리 이름. 漢代 張良이 黃石公을 만난 곳으로 지금 江蘇省 睢寧縣 북쪽에 있다.

상편은 張良의 행위에 대한 史論이다. ‘韓成이 살아 있었다면 劉씨 막내에게 신복했겠는가?’라는 말은 張良이 漢에 동조한 것은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는 어쩔 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 하편에 ‘남아있는 사당이 荒蕪함을 슬퍼하고 있으니 작가의 뜻은 바로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를 쓰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탄식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3구에는 재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悔恨을 표현하고 있다. ‘옛 사람의 사에서 옛 일을 노래하고 사물을 노래한 것은 은연중 다만 자기 속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대체로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sup>47)</sup>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漢 張良의 변절에 대한 깊은 심리를 대변하고 그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명의 멸망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청왕조에 협력하는 것은 평생의 뜻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작가의 현실 타협적인 의중을 표현하고 있다.

朱彝尊의 懷古詞에 보이는 특징은 古跡이나 山川景色에 대한 묘사,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評述 그리고 작가 內心の 感慨, 이 세 가지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자연과 역사와 현실을 하나로 녹여내어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sup>48)</sup> 많은 典故의 사용이나 이전 시인들의 詩境을 化用하는 등 고도로 단련된 수사 기법의 활용으로 그의 사에서 풍경이나 역사는 왕왕 단지 하나의 밑그림으로 작용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그런 밑그림을 통하여 작가 자신의 현실생활에 대한 감수를 드러내었다. 이 때문에 懷古의 필치가 펼쳐는 작품의 景物 묘사는 농후한 주관적인 서정 색채를 띠고 특수한 예술적 매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南宋詞의 變化에 주목하고 그 章法을 배운 결과로 그가 南宋詞, 그 중에서도 姜夔 張炎詞를 배울 것을 주장한 자신의 이론의 실천적 성과라 할 수 있겠다.

47) 劉熙載 《藝概·詞概》: 昔人詞, 詠古詠物, 隱然只是詠懷, 蓋其中有我在也

48) 陳士彪, <曝書亭詞略論>, 《杭州師院學報(社科版)》1986.3 p.19.

## IV. 詠物詞

詠物은 중국 詩詞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뛰어난 詠物 작품은 사물의 외형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정신이 함께 표현된다. 이런 의미에서 詠物은 抒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朱彝尊은 많은 詠物詞를 지었다. 《眉匠詞》《江湖載酒集》《蕃錦集》에도 물론 詠物詞가 포함되어 있지만 《茶煙閣體物集》은 전체가 詠物詞이다. 《茶煙閣體物集》은 기본적으로 후기에 지어진 작품들로 모아졌지만 朱彝尊이 清朝 入仕 이전에 지어진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詠物詞 가운데 뛰어난 작품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이다. 그의 대표적 詠物詞라고 할 수 있는 <長亭怨慢·雁>을 보자.

結多少 悲秋儔侶 特地年年, 北風吹度. 紫塞門孤, 金河月冷 恨誰訴.  
 回汀枉渚, 也只戀 江南住 隨意落平沙, 巧排作 參差箏柱  
 別浦. 慣驚移莫定, 應怯敗荷疎雨 一繩雲杪, 看字字 懸鉞垂露  
 漸歛斜 無力低飄, 正目送 碧羅天暮 寫不了相思, 又蘸涼波飛去

가을을 슬퍼하는 많은 짝들과 함께  
 특별히 해마다  
 북풍에 불리어 건너가네.  
 紫塞 關門은 외롭고<sup>49)</sup>  
 金河의 달 썰렁하니<sup>50)</sup>  
 恨을 누구에게 말하랴?  
 휘도는 물가 굽이진 섬인데도  
 오직 강남에 사는 것을 그리워하여

49) 崔豹 《古今注·都邑》에 의하면 秦이 장성을 쌓을 때 흙 빛깔이 모두 紫色 이었고 漢의 邊塞도 또한 그러하여 紫塞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의 紫塞는 雁門關을 가리킨다.

50) 金河는 지금의 大黑河로 內蒙古 동남쪽 托克托市에 이르러 黃河로 흘러 들어가며 옛날에는 雲中郡에 속하였다.

마음대로 평평한 모래에 내려가며  
 들쭉날쭉 箏柱처럼 멋지게 줄지었네.<sup>51)</sup>

別浦에서<sup>52)</sup>  
 습관적으로 놀라 옮기며 안정이 없는 것은  
 시든 연잎의 성근 빗소리에 겁먹어서겠지.  
 구름 끝의 새끼줄 하나  
 바라보니 글자마다 懸鍼 垂露<sup>53)</sup>  
 점점 기울어 힘없이 낮게 바람에 나부끼고  
 비야흐로 눈은 저무는 푸른 비단 하늘 진송하네.  
 相思 두 글자 다 쓰지 못하였는데  
 또 찬 물결에 잠겼다 날아가네.

상편은 기러기가 떴이어 남쪽으로 날아가 그윽한 한을 말할 때가 없음을 묘사하였고 하편은 기러기 떼가 강남에서 떠돌아다니고 놀라 옮겨다니면서 의지할 데 없음을 묘사한 것이다. 이 시는 작가가 고향을 떠나 지은 작품 같다. 그러므로 ‘恨을 누구에게 말하랴?’ ‘다만 강남에 사는 것을 그리워한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그리는 강남은 ‘휘도는 물가, 굽이진 섬’이다. 휘감아 흐르는 別浦에는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가 있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점점 기울어 힘없이 낮게 바람에 나부끼는’ 근심이 있으니 ‘또 찬 물결에 잠겼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 완곡하고 함축적이면서 身世之感을 살피기 어렵지 않다.<sup>54)</sup> 한편 기러기 떼의 형상으로부터 상상과 연상을 통하여 일종의 意境을 만들어 낸다. 즉 李自成的 반란으로

51) 箏은 악기이름이다. 柱는 弦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좌우로 이동하여 음의 높이를 조절한다. 이 句의 箏柱는 기러기 떼가 모래에 내려앉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52) 別浦는 강 지류가 본류로 유입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러기 서식지를 가리킨다.

53) 懸鍼 垂露는 漢 曹喜가 잘 썼다고 하는 書體의 일종이다. 懸鍼은 세로 획의 아래 부분이 바늘을 거꾸로 매단 것 같은 모습을 하였고, 垂露는 마치 이슬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한 것을 말한다.

54) 艾治平, 《清詞論說》 p.296.

淸의 군대가 關을 넘어 왔을 때 西北에서 강남으로 흘러 들어온 유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작가의 깊은 동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러기 떼에 대한 묘사가 자연스럽고 뛰어나서 이른바 神似의 경지에 이르렀고 감정과 뜻의 기탁 역시 심원하다. 陳廷焯이 이 작품을 평하여 “身世에 感慨하여 淒切한 정을 哀婉의 가락으로 써내니 悲涼하고도 忠厚하다. 이는 朱彝尊이 張炎에 바로 접근한 작품으로 사집 가운데 또한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sup>55)</sup>고 한 것은 적절하다. 《茶煙閣體物集》 가운데 이른바 神似를 구현한 詠物詞는 위 작품 외에 <笛家·題趙子固畫水墨水仙> <滿江紅·塞上詠葦> <疎影·芭蕉> <瀟瀟雨·落葉>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음 <春風裊娜·游絲>은 形似를 구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倩東君著力, 繫住韶華, 穿小徑, 漾晴沙. 正陰雲籠日, 難尋野馬, 輕颺染草, 細縮秋蛇.  
 燕蹴還低, 鶯銜忽溜, 惹却黃鬚無數花. 縱許悠揚度朱戶, 終愁人影隔紗.  
 惆悵謝娘池閣, 湘簾乍卷, 凝斜盼, 近拂簫牙. 疎籬罨, 短牆遮, 微風別院, 好景誰家.  
 紅袖招時, 偏隨羅扇, 玉鞭墮處, 又逐香車. 休憎輕薄, 笑多情似我, 春心不定, 飛夢天涯.

東君에게 부탁하여 힘을 써서  
 시간을 묶어 멈추게 하고는  
 작은 길을 뚫고 지나고  
 맑은 모래에 넘실거리네.  
 비야흐로 어두운 구름이 해를 덮어  
 野馬를 찾기 어려운데<sup>56)</sup>  
 가벼운 바람이 풀을 물들이고

55) 《白雨齋詞話足本校注》권3: 感慨身世, 以淒切之情, 發哀婉之調, 既悲涼, 又忠厚. 是竹垞直逼玉田之作, 集中亦不多見. (《朱彝尊詞集》 p.256 에서 재인용)

56) 野馬는 수면에 떠다니는 雲氣를 말한다. 《莊子·逍遙游》의 ‘야마란 티끌이다(野馬, 塵埃也)’ 에 대한 成玄英 疏에 의하면 봄날에 양기가 발동하여 멀리 늘지대를 바라보면 말이 달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야마라고 한 것이다.

가늘게 가을 뱀 말이놓았네.  
 제비에 치여 낮은 데로 내려오고  
 피꼬리에 물렸다가 홀연히 미끄러져 나와서는  
 오히려 노란 수염 무수한 꽃에 이끌리네.  
 제멋대로 산들산들 붉은 문을 넘어  
 마침내 비단 창 너머의 사람 그림자 슬퍼하네.

謝娘의 연못 누각에서 슬퍼하는데<sup>57)</sup>

湘竹 발 갑자기 걸히니  
 시선을 고정하여 걸눈길하다가  
 가까이 처마에 부딪치고  
 성근 울타리에 걸리며  
 낮은 담에 막히기도 하네.  
 미풍이 부는 別院  
 아름다운 풍경 누가 사는 집일까?  
 붉은 소매로 손짓할 때면  
 치우쳐 비단 부채를 따르고  
 옥 채찍 떨어지는 곳에서는  
 또 좁 수레를 쫓아가네.  
 경박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다정함이 나와 같다고 웃어주게나.  
 봄바람이 일정하지 않아서  
 하늘가에 날아와 꿈을 꾸는 것이니.

이 시는 화면의 부단한 변환을 통하여 比喻 擬人 등의 수법으로 游絲를 묘사하였는데 사물에 대한 이해가 미묘한 데까지 미치고 글자의 사용이 정확하여 곳곳에 작가의 공력이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그러나 사물을 따라 사물을 노래한 이른바 形似에 그치고 있어 작품 어디에서도 분명한 寓意는 찾아볼 수 없다. 이 밖에 形似를 구현한 작품으로 <聒龍謠·雪>,

57) 謝娘은 晉 王凝之의 처 謝道韞이다. 그녀의 才學이 뛰어나 뒤에 학문이 있는 여자를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일반 여자를 가리킨다

<掃花游·試茶>, <雙雙燕·別淚>, <臨江仙引·枯荷>, <暗香·紅豆> 등을 들 수 있다. 또 <臨江仙引·詠茄>, <臺城路·芋>, <柳梢青·西瓜>, <天香·寫生冬瓜> 등은 기탁된 깊은 뜻은 없지만 이제까지의 詠物詞에서 잘 다루지 않던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雅語로 俗物을 써낸 것으로 나름대로 雅正의 운치가 있다.

《茶煙閣體物集》에서 다른 詠物 대상은 방대하고 다양하다.<sup>58)</sup>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만 字句를 단련하고 생소한 典故를 나열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言外의 깊은 뜻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양이를 읊은<雪獅兒> 3수는 錢芳標에게 和答한 詞로 모두 典故만을 늘어놓은 듯한 사치스런 작품이고, <沁園春> 12수는 여성 신체의 각 부분을 읊은 것으로 거의 褻詞에 가깝다. 이처럼 朱彝尊의 후기 詠物詞에서 言外의 뜻이 기탁된 작품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문자 유희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詞를 言志의 詩와 달리 태평성대 구가의 서정수단으로 여긴 점,<sup>59)</sup> 康熙 盛世의 시대분위기에서 感慨를 바탕으로 한 詞의 寄託 운용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 朱彝尊이 지나치게 사의 典雅細膩의 美感特質에 편중되어 사의 내용적 측면을 忽視하였다는 점,<sup>60)</sup> 詩詞 창작에 있어서 학식과 재주를 드러내기를 탐한 朱彝尊의 개인적 습성 등<sup>61)</sup>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朱彝尊의 醇雅論은 사 언어의 문제, 음률의 합치 문제, 표현기법의 문제 등 외형적인 면에 집중되고 내용적인 면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는데,<sup>62)</sup> 淸初 詞壇의 領袖로 인정되던 그의 후기 詠物詞 창작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론상의 결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外形의 雅正만을 추구하고 내용의 寄託을 회피한 후기 詠物

58) 張宏生の 통계에 의하면 《茶煙閣體物集》에서 읊은 구체 사물은 6類 81種에 달한다. (張宏生, 《清代詞學的建構》,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59) 拙稿, <朱彝尊詞論研究> p.151.

60) 魯竹, <樂府補題與浙西六家的詠物詞>, 《南陽師院學院學報(社科版)》, 2002.5 pp.66, 67.

61) 葉嘉瑩, 《清詞叢論》 pp.130-133.

62) 拙稿, <朱彝尊詞論研究> p.154.

詞를 통해 朱彝尊이 주장한 醇雅의 의미 범주의 한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V. 결 론

깊은 성정의 소유자였던 朱彝尊은 아름다우면서도 경박하지 않고 자유로우면서도 절제된 표현으로 슬프고 아름다운 艷情을 잘 그려내었다. 특히 처제와의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깊고 진지한 감정을 섬세한 부분까지 포착하여 白描의 수법으로 써 낸 《靜志居琴趣》의 성취는 清初 詞壇의 浮艷한 기운을 씻어내기에 충분하였다.

懷古詞에 있어서 朱彝尊은 古跡이나 山川景色에 대한 묘사,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評述 그리고 작가 內心の 感慨, 이 세 가지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자연과 역사와 현실을 하나로 녹여내어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었다. 典故의 사용이나 이전의 詩境을 化用하는 등 고도로 단련된 수사 기법의 활용으로 그의 사에서 풍경이나 역사는 왕왕 단지 하나의 밑그림으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작가 자신의 생활에 대한 감수를 드러내어 景物 묘사는 농후한 주관적인 서정 색채를 띠었다. 이는 南宋詞의 변화에 주목하고 그 章法을 배운 결과로 唐 五代 北宋詞의 성취만을 배우려고 했던 清초 사단의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기여하였다.

朱彝尊은 《樂府補題》를 발굴하여 京師에 소개하고 아울러 방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하여 詠物詞를 창작하여 清초 사단에 있어서 영물사 창작 풍조를 크게 진작시켰다. 그러나 사물의 외형적 묘사와 함께 그 사물에 내재된 정신적 경계를 그려낸 것은 젊은 시절에 지어진 소수 작품에 한정되고 《茶煙閣體物集》에 보이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다만 字句를 단련하고 생소한 典故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言外의 깊은 뜻은 찾아보기 힘들다.

朱彝尊 사는 《江湖載酒集》이 완성되는 강희 11년(1672) 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 초기 습작사인 《眉匠詞》를 포함하여 전기에 지어진 《靜志居琴趣》《江湖載酒集》에는 失意에 찬 客居 생활과 悲戀의 체험에서 비롯된 역사와 현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작가의 감수가 녹아 있으니, 이러한 작품들은 淸初 詞壇의 低俗한 기운을 바꾸는데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蕃錦集》에는 集句詞를 모아놓았고, 《茶煙閣體物集》의 대부분은 字句의 단련과 典故의 나열에 치중한 작품들이었으니 이러한 창작과 편집행위는 작가 개인의 학문의 淵博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고급 문자 유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朱彝尊의 後期詞는 표현에 있어서의 鄙俗은 피하였다고 하나 이후 浙西詞派의 詞風이 餽釘과 空疎로 흐르게 한 발단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朱彝尊, 《曝書亭全集》, 臺三版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3.6.  
 屈興國 袁李來 点校, 《朱彝尊詞集》,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4.5.  
 唐圭璋 編,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1986.  
 蘇淑芬, 《朱彝尊之詞與詞學研究》,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3.  
 葉嘉瑩, 《清詞叢論》,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1997.7.  
 張宏生, 《清代詞學的建構》,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艾治平, 《清詞論說》 上海: 學林出版社, 1999.7.  
 《金元明清詞鑒賞辭典》, 南京大學出版社, 1989.4.  
 羅仲鼎 陳士彪, <朱彝尊年譜>, 《朱彝尊詩詞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9.10, pp.212-236.  
 屈興國 袁李來, <朱彝尊詞學平議>, 《南京大學學報 人文哲學社科版》, 1989.1, pp.69-78.  
 陳士彪, <曝書亭詞略論>, 《杭州師院學報(社科版)》1986.3.

魯竹,〈樂府補題與浙西六家的詠物詞〉,《南陽師範學院學報(社科版)》,2002. 5 pp.60-67.  
拙稿,〈朱彝尊詞論研究〉,《中國文學》 제39집, pp.130-154.

### 〈中文提要〉

本稿通過考察朱彝尊詞中的艷情詞,懷古詞,詠物詞論述了其在清初詞學中所起的作用。朱彝尊性情深沉,他的作品美却不輕薄,自由奔放的同時充滿了節制,生動表現了悲凄美好的情感。尤其是他以自己與妻妹這一無法實現的愛情為素材所寫成的《靜志居琴趣》,以白描的手法細膩地描寫了無法言表的個人內心深沉真摯的情感,一掃了清初詞壇浮艷的風氣。

朱彝尊在懷古詞中將對古迹山川風景的描寫與對歷史事件,人物的評述以及作者內心的感慨這三要素緊密地聯繫起來,將自然與歷史以及現實巧妙地融為了一體。在用典及前人詩境的化用方面運用了高超的修辭技巧,使其作品中的風景及歷史往往只是作為一種背景畫面,而更重要的是在此基礎上吐露作者自身對生活的感受,所以其懷古詞作品中的景物描寫帶有濃厚的主觀抒情色彩,這些都緣於朱彝尊積極效法南宋詞的章法。這對於只是一味追求效倣唐、五代、北宋詞的清初詞壇來說無疑是開創了嶄新的風氣。

朱彝尊發掘并向京師介紹了《樂府補題》,親自創作了以龐大事物為對象的詠物詞,由此大大地振興詠物詞的創作。可是在描寫事物外形的同時刻畫事物內在精神境界的作品只限於其青年時期的少數作品,《茶煙閣體物集》的大部分作品只限於字句的雕琢及一些生澁的典故的堆砌而無法表達更深的含意。

康熙11年朱彝尊完成了《江湖載酒集》,以此為轉折點其作品的性質發生了很大的變化。其初期習作的《眉匠詞》以及早期創作的《靜志居琴趣》、《江湖載酒集》充滿了由於失意的客居生活、悲戀的體驗產生的作者對歷史與現實以及愛情的感受,這些作品在改換清初詞壇風氣方面起到了很大的作用。

但《蕃錦集》都是集句詞，《茶煙閣體物集》的大部分作品是沒有含意的詠物詞。這些可以說是作者個人爲了炫耀其淵博的學問的一種高級文字遊戲。朱彝尊晚期的詞作品雖然沒有流於卑俗，但可以說是使其後的浙西詞派的詞風流於餽釘與空疎的開端。

주제어 : 朱彝尊, 艷情, 懷古, 詠物

